

팔라츠키(F. Palacký)의 학문적 활동: 체코 3월혁명(1848년) 이전의 시기를 중심으로

김장수

관동대학교 사학과

체코의 다른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팔라츠키(F. Palacký)는 체코의 언어 및 역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팔라츠키는 체코 민족의 역사를 재정리하여 그의 민족에게 민족적인 자긍심과 현실적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역사적 당위성을 부여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시도는 1829년부터 본격화되었고 7년 후인 1836년에 이르러서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팔라츠키가 그의 학문적 금자탑으로 간주되는 '보헤미아사'를 이 해에 출간하였기 때문이다. 팔라츠키는 '보헤미아사'에서 체코 민족을 비롯한 슬라브 민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독일 민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지식인들은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의 작품이 역사서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혹평을 가하였다. 그러나 팔라츠키는 역사적 사료에 근거한 그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쟁점화시켜 슬라브 민족의 동의도 얻어내려고 하였다.

I

오늘날 체코민족의 국부로 추앙되는 프란치셰크 팔라츠키(F. Palacký)는 1798년 9월 14일 쿤발트(Kunwald)근처의 발라헬(Walachem)에서 태어났다 (V. J. Nováček, 1898: 2).¹⁾ 그의 아버지 지리 팔라츠키(J. Palacký)는 그의 아들이 태어나기 이전인 1784년부터 이 마을 교회부설학교의 선생 및 서기로써 활동하였다. 그러나 지리 팔라츠키는 그의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없었는데 그것은 교회로부터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수확기에 임금농부로서 일을 하여야만 되었다 (V. J. Nováček, 1898: 2; P. Plaschka, 1968: 8).²⁾ 경제적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을의 다른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는 프란치셰크가 6살이 되었을 때 교회학교에 입학시켰고, 3년 후인 1807년에는 쿤발트의 Schloß학교로 보내어 정규과정을 밟게 하였다. 그러나 지리 팔라츠키는 그의 아들이 이 학교의 부사제(Schloßkaplan)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간파한 후 즉시 그를 트레친(Trenčín)의 기독교 교회 부설학교로 전학시켰다. 지리의 이러한 조치는 그 자신이 열성적인 신교신자라는 것과 당시 구교에 대한 체코인들의 일반적 반감에서 비롯된 것 같다 (V. J. Nováček, 1898: 2-3; R. Wierer, 1957: 246).

1) 쿤발트는 모라비아 지방에 위치한 소도시였다.

2) 심지어 그는 Wien으로 곡물을 팔러 가야만 했다.

그러나 팔라츠키는 트렌친에서의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라틴어 문헌연구에 치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학교 공부보다는 종교적 문제들을 취급한 책이나 논문들을 주로 읽었다 (F. Hrejsa, 1927: 28-29).³⁾ 그러다가 프란치셰크는 1812년, 그의 나이 14세 때 슬로바키아 최고의 명문교였던 프레스부르크(Pressburg; 오늘날의 Bratislava)의 신학교(Lyzeum)에 입학하게 되었다.

이 당시 프레스부르크는 오스트리아 제국내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낭만주의, 특히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도시 분위기는 팔라츠키로 하여금 칸트(I. Kant), 헤르더(J. F. Herder), 그리고 헤겔(P. Hegel) 등의 작품이나 논문들을 읽게 하였고 나아가 그들의 이론 및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였다.⁴⁾

팔라츠키는 프레스부르크에서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학문적 완숙도 기할 수 있었는데, 체코의 저명한 역사가였던 플라슈카(R. Plaschka)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R. Plaschka, 1968: 11).

“팔라츠키는 학문적으로 완성된 인물로 프레스부르크를 떠났다. 그의 세계관은 이미 정립되었고 그의 학문적 진전 역시 괄목할 만하였다. 특히 그는 역사적 안목을 가지게 되었고 민족을 역사의 동인적 요소, 즉 능동적 요소로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라 하겠다. (...)팔라츠키는 한 민족이 잠중상태(열세집단: 필자의 해석)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 및 역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육성하는 자세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팔라츠키가 3월혁명 이전, 즉 보헤미아 지방에서 민족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에 펼쳤던 학술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여기서는 팔라츠키가 독일 낭만주의를 어떻게 접하였고 그것이 그의 사상정립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조명하도록 하겠다. 또한 팔라츠키가 학술활동을 전개하면서 그의 민족에게 무엇을 부여하려고 하였는지와 그러한 것이 독일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수렴되었는지도 고찰하도록 하겠다.

II

이 당시 보헤미아 지방에서는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두 세대가 있었다. 제1세대로 지칭되는 보이그트(N. Voigt), 펠츨(F. M. Percl), 도브네르(G. Dobner), 도보로프스키(J. Dovorowský) 등은 체코어를 순화시키는 작업과 체코 민족의 역사를 재정리하는 것을 그들의 기본과제로 인식하였는데 그러한 것들은 독일 낭만주의에서 강조된 부분들

3) 이 시기 팔라츠키가 가장 원했던 직업은 신교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다.

4) 팔라츠키는 이외에도 Montesquieu, Madame de Staël, Fichte, Goethe, 그리고 Schiller의 저서들도 읽었다 (R. Wierer, 1957: 246-247; R. Plaschka, 1968: 8; J. Pfitzner, 1930: 64).

이라 하겠다.⁵⁾ 도보로프스키를 비롯한 제1세대의 학문적 활동은 보헤미아 귀족들로부터 지원되었는데 그것은 마리아 테레지아(Maria Theresia; 1740-1780)와 요셉 2세(Joseph II; 1765-1790)의 중앙집권화정책과 거기서 파생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 당시 보헤미아 귀족들은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Wien 정부의 재정적 요구, 즉 중앙집권체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여야만 되었다. 아울러 이들은 농노해방령으로 야기된 재정적 손실 역시 일방적으로 감수하여야만 되었다. 또한 이들은 보헤미아 지방에서 진행되던 제도개혁, 예를 든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주도하였던 자치의결기구들이 중앙정부의 부속기구로 편입되는 것 등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책도 제시할 수 없었다 (F. Bohm, 1990: 170).⁶⁾ 따라서 보헤미아 귀족들이 민족 운동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단순히 그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진정으로 그들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여 취해진 것은 아니었다 (F. Bohm, 1990: 173; H. Raupach, 1939: 28-30; F. Prinz, 1991: 27).

민족운동의 제1세대는 체코 민족이 가까운 시일 내에 오스트리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 기간 중 가능한 한 정치적 발언은 회피하였다.⁷⁾

제1세대보다 약 20년 정도 늦게 형성된 제2세대는 팔라츠키, 샤파르지크(P. J. Šafarík), 하블리체크-보로프스키(K. Havlíček-Borovský) 등의 인물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체코어의 순화작업 및 체코 민족의 역사정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제1세대와는 달리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언급은 주로 보헤미아 지방 및 오스트리아 제국의 정치적 상황과 거기서 파생된 민족 문제에 국한되어졌다. 그렇지만 이들이 정치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메테르니히(Metternich)체제가 붕괴된 3월혁명(1848) 이후부터였다 (F. Bohm, 1990: 175-176; K. Bosil, 1971: 635-640; F. Prinz, 1991: 28).

팔라츠키를 비롯한 제2세대는 제1세대와 마찬가지로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 특히 헤르더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한 것은 이들에게 정치적인 안목을 제공하였다. 즉 이들은 헤르더의 주장인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존재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들 모두가 신의

5) 제1세대에 속하였던 이들의 학문적 업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이그트는 ‘보헤미아 법제사’를 저술하였고, 도브네르는 보헤미아의 사료들을 연구, 정리하여 1783년 ‘보헤미아 역사의 원전(Monumenta historica nusque antehac edita)’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1793년 여름학기부터 프라하 대학의 언어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펠츨은 1774년에 ‘보헤미아 소사(kurze gefaßte Geschichte Böhmens)’를 출간하였다. 도보로프스키도 1792년 ‘보헤미아 언어·문학사(Geschichte der böhmischen Sprache und Literatur)’를 간행하였다. 특히 그는 여기서 16 세기를 ‘체코어의 황금기(das goldene Zeitalter der tschechischen Sprache)’로 보았고 체코 민족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러한 시기의 제도래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F. Bohm, 1990: 168-173).

6) Maria Theresia는 즉위 즉시 보헤미아의 궁내성(Hofkanzlei)을 비엔나 궁내성에 편입시켰다.

7) 즉 이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언급은 금기 사항이었다 (F. Bohm, 1990: 173; H. Raupach, 1939: 30; F. Prinz, 1991: 27).

창조물이기 때문이다'를 오스트리아 제국 내에서 제기되던 민족문제에 대입시켰다. 이러한 시도에서 제2세대는 그들 민족과 독일 민족사이의 법적·사회적 불평등 제거가 바로 그들에게 부여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을 3월혁명 이전부터 쟁점화 시키기 시작하였다 (J. K. Hoensch, 1993: 317; J. Kořalka, 1991: 185-186; H. Sundhaußen, 1973: 26-31).

III

II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팔라츠키는 체코 민족 운동의 제2세대에 속한 인물이었다. 그 역시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과정은 다소 특이하였다. 팔라츠키가 독일 낭만주의를 처음으로 접한 것은 프레스부르크에서 공부하던 시기였다. 고향 발라헴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는 서신교환이란 방법을 통하여 독일 낭만주의와 계속 접촉할 수 있었다. 즉 그는 당시 독일 대학에서 공부하던 체코 학생들로부터 낭만주의의 이론 및 그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나름대로 이론정립에 몰두하였다. 특히 그는 예나(Jena)대학에 유학 중이던 파르비(A. Farby), 쉼코(B. Šimko), 베네딕티-브라호슬라브(E. Benedikti-Brahoslav), 그리고 샤페르지크와 같은 학생들과 서신교환을 하면서 독일 낭만주의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⁸⁾

그러면 여기서 다음의 질문들이 제기되는데 그것은 첫째, 팔라츠키가 언제부터 체코 민족의 역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는가, 둘째, 왜 그는 체코의 다른 학생들처럼 독일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았는가이다.

팔라츠키는 보헤미아 지방의 다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독일어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그는 프레스부르크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까지 체코어를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코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가 팔라츠키는 1813년 가을 트렌친 근처의 소유에서 접한 사건을 계기로 체코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팔라츠키는 호드슬라비체(Hodslavice)에서 프레스부르크로 돌아가던 중 폭풍우로 트렌친의 한 여관에서 하루를 머물러야 했다. 그는 저녁식사 후 여관주인이었던 바코스(E. Bakos)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여기서 바코스는 체코어로 출간된 문학서적들을 팔라츠키에게 내보이면서 읽어볼 것을 권유하였지만 그는 이 책들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이에 바코스는 그 자신이 체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코서적들을 읽을 수 있는데 하물며 체코의 한 지식인으로서 모국어로 출간된 책들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힐책하였다. 그러나 팔라츠키는 바코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다. 팔라츠키는 바코스와의 대화를 끝낸 후 자신이 체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체코어를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수치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감정은 그로 하여금 체코어를 배우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

8) 이 당시 루덴은 문화적 측면에서 민족주의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J. Kalousek, 1898: 27-28; J. Pfitzner, 1930: 60-61; F. Prinz, 1991: 43).

가 되었다 (Josef F. Žáček, 1960: 15-16).

프레스부르그로 돌아온 팔라츠키는 학교부설 어학원에서 체코어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프레스부르그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팔코비치(J. Pálkovič)가 추진하던 체코어 정화작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그는 팔코비치 교수가 간행하던 ‘체코주간신문(tschechische Wochenzeitung)’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⁹⁾

두번째 질문의 해답은 피쯔너(J. Pfitzner)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역사학보(Historische Zeitschrift) 제14집(1930)에 기고한 ‘하인리히 루덴과 프란치체크 팔라츠키(Heinrich Luden and František Palacký)’라는 논문에서 팔라츠키가 왜 독일유학을 포기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팔라츠키가 만일 신교 성직자로서 활동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반드시 독일 대학으로 유학을 갔어야 했다는 주장을 피쯔너가 펼쳤는데 그러한 것은 신교 성직자양성소가 오스트리아 제국에 없었다는데서 비롯된 것 같다 (J. Pfitzner, 1930: 61-62).

팔라츠키는 예나 대학에서 공부하던 체코학생들 중에서 특히 샤페르지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됨에 따라 이들 사이의 서신교환은 점차적으로 늘어났다.¹⁰⁾ 샤페르지크의 편지를 통하여 접하는 루덴의 강의에서 팔라츠키는 중요한 과제를 파악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조국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었다. 아울러 그는 역사의 기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¹¹⁾

“정말로 사람들이 조국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민족의 연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러한 시도에서 그들 민족의 혼을 파악하고, 찾아내려는 의지를 가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은 그들 민족의 문화수준(Kulturniveau)이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것들이 저해요소와 증진요소(störende Faktoren bzw. fördernde Faktoren)로 작용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인간의 과거를 통하여 오늘을 정확히 보는 방법은 단 한가지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역사의 기능 내지는 특성을 통하여 오늘날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거기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9) 조국에 대한 팔라츠키의 관심은 그의 일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전혀 관심이 없던 조국에 대한 나의 관심은 불타 오르는 것 같다. 이제 나는 이러한 관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속적인 것이 되게끔 노력할 것이다.” (Josef F. Žáček, 1960: 16; R. Plaschka, 1968: 12).

10) 팔라츠키는 베네딕티-브라호슬라브의 소개로 샤페르지크를 알게 되었다. 1815년부터 시작된 팔라츠키와 샤페르지크와의 서신교환은 예나 대학에서 샤페르지크의 공부가 끝날때인 1817년 10월까지 지속되었다. 1821년 팔라츠키는 부다(Buda)에서 샤페르지크와 베네딕티-브라호슬라브를 만났고 여기서 이들은 체코의 고전시를 공동연구하기로 하였다. 1823년에 그 결실로 ‘pisne svetské lidu slovenského v Uhrich’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J. Pfitzner, 1930: 62).

11) 이 당시 루덴은 독일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확산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J. Pfitzner, 1930: 63).

샤파르지크와 베네딕티-브라흐슬라브의 서신에서는 루텐의 강의뿐만 아니라 당시 독일권에서 간행된 신간들이 자세히 언급되었다. 아울러 이들의 편지에서는 독일의 정치적인 움직임들도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 즉 메테르니히체제의 조직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독일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것과 예나 대학과 쾨팅겐(Göttingen) 대학 등이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 등이 자세히 언급되었다. 아울러 샤파르지크는 1815년부터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대학생 조합(Burschenschaft)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J. Pfitzner, 1930: 62-65).

팔라츠키 역시 그가 구입할 수 있는 서적들과 정기간행물인 ‘비엔나 일반 문학신문(Wiener Allgemeine Literaturzeitung)’, ‘억스부르그 일반신문(Augsburger Allgemeine Zeitung)’, ‘비엔나 문학 연감(Wiener Jahrbücher der Literatur)’ 그리고 ‘Nemesis’ 등을 통하여 독일 낭만주의의 흐름과 거기서 강조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¹²⁾ 이러한 과정에서 팔라츠키는 프레스부르그 유학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칸트와 헤르더의 이론에 더욱 접근하게 되었다. 특히 종교적 믿음에 대한 칸트의 비판은 그로 하여금 신앙문제에 대한 명백한 관점 내지는 신조를 가지게 하였다.¹³⁾

칸트가 팔라츠키에게 종교적인 관점을 부여했다면 헤르더는 그에게 정치적인 안목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헤르더의 관점은 3월혁명 이후 팔라츠키가 보헤미아 지방 및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할 때 하나의 신조로써 작용하였다 (R. Plaschka, 1968: 8-10). 헤르더는 그의 ‘인류사 철학을 위한 이념(Ideen zur Philosophie der Geschichte der Menschheit)’에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그는 각 민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슬라브 민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헤르더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소질 및 재능적인 차원에서도 인류의 동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그는 한 민족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억압을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재능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헤르더는 독일 민족의 억압하에 놓여있던 슬라브 민족을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J. Herder, 1965: 433-435).

슬라브 지식인들은 헤르더의 이러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평가를 비판없이 수용하였으며 팔라츠키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팔라츠키는 헤르더가 제

12) 네메시스 루텐이 간행한 잡지인데 여기서는 주로 정치적 현안들이 거론되었다. 예를 든다면 메테르니히체제의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J. Pfitzner, 1930: 75).

13) “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한 최고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힘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보호하는 능력도 가졌음을 인정한다. 아울러 나는 이 힘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계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신의 특별한 힘으로 예수가 등장한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독단적인 분류(in den dogmatischen Verwicklungen)에 개입하지 않고 휘말리지도 않을 것이다” (R. Plaschka, 1968: 8).

시한 슬라브 민족의 제 특성을 체코 민족에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체코 민족이 오늘날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그들의 ‘부드럽고, 목가적인’ 성향 때문이라는 것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민족적인 자각이라는 것도 터득하게 되었다 (F. Bohm, 1990: 8-9; J. Kalousek, 1898: 193-195; F. Prinz, 1991: 43).

헤르더와 더불어 팔라츠키에게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는 쉴레겔(F. Schlegel)을 들 수 있다. 쉴레겔은 비엔나에서 간행되던 신문들, 즉 ‘비엔나 일반 문학신문’과 ‘비엔나 문학연감’을 통하여 슬라브인들의 민족과제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민족운동의 선각자들은 우선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의 언어를 정화시키고 그들 민족의 역사도 올바르게 재조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한 민족이 그들의 언어를 거칠게 하거나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경우 그것은 그들 스스로를 야만적 상태로 떨어뜨리는 행위로 간주하였다. 아울러 그는 한 민족이 그들의 과거를 망각할 때 그들의 정신적 발판과 존재마저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F. Bohm, 1990: 36-41).

IV

프레스부르크에서 학업을 끝낸 후 팔라츠키는 고향에서 학문적 연구를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도보로프스키의 제안에 따라 1821년 4월 11일 프라하로 오게되었다 (F. Bohm, 1990: 126; R. Plaschka, 1968: 11). 이 당시 팔라츠키는 체코 민족의 독자성이 부각되었던 후스(J. Hus)시기의 기념물과 원전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프라하에서 민족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간파한 팔라츠키는 이 도시에 대하여 실망을 하게 되었고 체류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¹⁴⁾ 이러한 때 도보로프스키는 팔라츠키에게 몇 명의 보헤미아 귀족, 즉 프란츠 슈테른베르그(Franz Sternberg) 백작, 카스파르 슈테른베르그(Kaspar Sternberg) 백작, 클람-마르티니츠(H. Clam-Martinic) 백작, 그리고 툰(L. Thun) 백작을 소개하였다.¹⁵⁾

팔라츠키와 교류를 갖기 시작한 이들 귀족들은 곧 그의 학문적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팔라츠키에게 그들 혈통에 대한 연구를 부탁하였고 그것은 보헤미아 역사에 대한 팔라츠키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 당시 보헤미아 귀족들은 중앙주의정책으로 위협받던 그들의 고유권한을 방어하기 위한 역사적 근거가 필요하였고 그러한 과제를 체코 민족운동의 선각자들에게 종종 위임시켰다. 따라서 팔라츠키에게 부여한 과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F. Bohm, 1990: 126-127; F.

14) 팔라츠키는 프라하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체코인 어느 누구도 공공장소에서 체코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들이 체코어를 배우지 않았거나 또는 이 언어의 사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불이익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R. Plaschka, 1968: 11).

15) Bohm은 팔라츠키가 카스파르 슈테른베르그와 프란츠 슈테른베르그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오늘날의 명성도 얻지 못하였으리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F. Bohm, 1990: 126-127).

Palacký, 1843: 123-129).

보헤미아 귀족들은 1829년 팔라츠키를 그들의 사료편집자(Historiographen)로 임명하였고 그에게 고대부터 당시대까지의 보헤미아 역사를 새로이 기술할 것을 요청하였다. 팔라츠키 역시 보헤미아사를 새로이 기술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귀족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팔라츠키는 곧 보헤미아사를 새로이 서술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유실되었음을 간파하였고 이는 그로 하여금 유럽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찾게끔 하였다 (R. Plaschka, 1968: 13).

팔라츠키는 보헤미아사 저술 이외에도 여러 부분, 즉 그의 주작업에 필요한 보충적 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여 그의 연구에 병행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가시적 결과는 '1378년부터 1527년까지의 연대기(die alten böhmischen Chroniken vom Jahre 1378 bis zum Jahre 1527)'가 1829년에 출간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30년에는 '고대 보헤미아 사가들의 업적(Würdigung der alten böhmischen Geschichtsschreiber)'이 편찬되었는데 여기서는 코스마스(Cosmas), 하예크(V. Hajak)을 비롯한 31명의 역사가들의 학문적 업적이 정리되었다 (R. Plaschka, 1968: 14-15). 이러한 팔라츠키의 학술활동은 체코 민족에게 민족적인 자긍심을 부여하려는 목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체코 민족도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독일 민족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도 가졌다 하겠다.

1830년 팔라츠키는 도보로프스키가 사망함에 따라 '보헤미아 왕립 학술원'의 정회원직을 승계하였는데 이는 그의 학문적 업적 및 능력이 이미 보헤미아 사회에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1831년 팔라츠키는 'Matice Česká'라는 독서협회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⁶⁾ 이 독서협회에는 팔라츠키 이외에도 사파르지크, 하블리체크-보로프스키 등이 참여하였다. '보헤미아의 양서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한다'라는 취지 하에서 결성된 이 독서협회는 얼마 되지 않아 체코 민족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Matice Česká'는 체코민족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역사서나 문학작품들을 출간하는데 주력하였다 (K. Hoensch, 1993: 318).

183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팔라츠키는 그의 연구를 보다 진작시키기 위하여 인접 국가들에 대한 학술여행을 자주 하게 되었다. 특히 보헤미아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이었던 팔쯔(Pfalz)와 바덴(Baden)을 비롯한 남부 독일과 파리(Paris), 바젤(Basel), 그리고 로마(Roma)와 같은 도시들을 자주 방문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R. Plaschka, 1968: 15-16).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팔라츠키는 '보헤미아사(Geschichte

16) 'Matice Česká'는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졌다. 그리고 보헤미아 박물관지(Casopis Ceskeho musea)의 부속기구였던 이 독서협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티프트루크(K. Tiefftruk)와 네베스키(W. Nebesky)의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K. Tiefftruk, 1881; W. Nebesky, 1868).

von Böhmen, Dějiny národu českého v Čechách)’의 제1권을 1836년에 출간하였다.¹⁷⁾ 팔라츠키는 책의 서두에서 ‘체코 민족에게 진실된 과거를 제공한다’라는 입장을 천명하여 이 책에서 지향하는 바를 명백히 밝혔다.

보헤미아사에서 팔라츠키는 1526년 이전의 역사를 주로 취급하였는데 그것은 체코 민족이 독자적으로 거대한 국가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 같다 (F. Palacký, 1836: 136).¹⁸⁾

보헤미아사가 출간된 이후 독일의 사학자들, 하트만(M. Hartmann), 마이쓰너(A. Meissner), 크놀(J. L. Knoll), 그리고 그라저(R. Graser) 등은 팔라츠키가 그의 작품에서 체코 민족과 독일 민족을 인위적으로 대칭시키려는 노력만 기울였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그라저는 1837년 ‘Ost und West’에 기고한 논문에서 팔라츠키가 체코 민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독일 민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팔라츠키가 독일 민족을 평화보다는 전쟁을 선호하는 민족으로 간주한 것과 그들의 봉건제도를 인접국가에 강제적으로 이식시키려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F. Prinz, 1993: 62). 아울러 그라저는 독일 민족이 중세와 근대에 보헤미아 지방을 실제적으로 지배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¹⁹⁾

팔라츠키는 독일 사가들의 이러한 혹평에도 불구하고 그의 견해 및 주장은 역사적 사료들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그의 역사서술이 민족운동에 관심을 보이던 시민 계층에게 정치적인 자각과 반독일 감정의 역

17) 1836년에 간행된 팔라츠키의 보헤미아사는 독일어판이었다.

18) 팔라츠키 역시 이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엇보다도 본인은 프레제미슬 왕조(1192-1310: 보헤미아 왕국의 전성기)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왕조의 바츨라브 2세(Václav II, 1278-1306)시대에 이르렀을 때 본인은 본인의 부친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페르디난트(Ferdinand II, 1619-1637)와 1620년 백산전투(Schlacht am Weißen Berge)에서 안할트(C. v. Anhalt) 주도하의 보헤미아 귀족들이 오스트리아에게 패배를 당하였다. 그리고 이는 보헤미아 지방이 오스트리아에 편입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에 도달하였을 때 본인은 본인의 마지막 울음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따라서 본인은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Vgl., J. K. Hoensch, 1993: 320).

19) 오늘날에도 독일 사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견지되고 있는데 베게너(W. Wegener)의 주장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것이 확인된다. 베게너는 그의 논문에서 독일인들이 보헤미아 왕국의 지방들을 통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것의 근거로 ①신성로마제국 황제의 사유재산이 보헤미아 왕국에 전혀 없었다는 것 ②보헤미아 왕국에 대한 구교의 지배권 및 간섭이 전혀 없었다는 것 ③황제의 기마행렬이 이 지방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베게너는 중세 신성로마제국과 보헤미아 왕국과의 관계는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성격이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그는 팔라츠키가 역사서술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한다 (Bewahrung der Objektivität)’를 명각하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사료로서의 가치도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W. Wegener, 1974: 72-73).

사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었다.

1840년대에 접어들면서 팔라츠키는 그의 학술활동을 보다 증대시켰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독일어로 출간된 저서들을 체코어로 번역하여 재출간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보였다.²⁰⁾ 이 당시 팔라츠키는 향후 출간되는 저서들을 가능한 한 체코어로 출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러한 것은 그 자신이 체코 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게 된 것과 체코의 민족 운동이 저변으로 확산되는 희망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 같다.

V

지금까지 팔라츠키의 학술활동을 살펴보았다. 특히 여기서는 그가 독일 낭만주의 영향을 받아 체코 민족의 현실적 과제 및 거기서 비롯된 의무를 정확히 파악한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팔라츠키는 프레스부르크 유학시절부터 체코 민족의 언어 및 역사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에 대한 그의 관심은 매우 진지하였다. 고향 발라헴으로 돌아온 후에도 학문적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팔라츠키는 도보로프스키의 권유에 따라 프라하에 오게 되었다. 이 도시에서 그는 체코 귀족들의 요청으로 역사연구를 시작하였지만 의외의 성과를 거두게 되어 민족적인 자긍심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팔라츠키는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부각되던 민족주의 원칙에 따른 독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그것은 그가 동·중부유럽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였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그는 체코 민족이 오스트리아 제국을 이탈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제국 내에서 민족적인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오스트로슬라비즘(Austroslavism)의 핵심내용이라 하겠다.²²⁾ 1848년 4월 11일 Frankfurt 국민의회 50인 준비위원회 의장인 Soiron에게 보낸 서신(Eine Stimme über Österreichs Anschluß an Deutschland)에서 최초로 확인된 이러한 그의 관점은 그가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정

20) 이 시기에 독일어판의 보헤미아사가 체코어판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21) 1840년대 초부터 헝가리 정치가였던 코슈트(L. Kossuth, 1802-1894)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R. Weishar, 1956: 26-28).

22) 이 당시 팔라츠키는 제국 내 슬라브 민족들이 민족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을 쟁취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예상을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슬라브 세계를 통합하려던 러시아가 이들 국가들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병합하리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이후에 펼쳐질 상황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였는데 그것은 슬라브 민족들이 이전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리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 같다. 따라서 그는 제국 내에서 민족간의 평등을 구현시키는 것이 오히려 슬라브 민족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여 연방주의체제의 도입을 3월혁명(1848) 이후부터 강력히 주장하게 된 것이다 (F. V. Krejčí, 1912; J. L. Hro-mádka, 1926; J. Kořalka, 1982).

치활동을 중단하는 1870년대 초까지 견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팔라츠키의 이러한 관점은 당시 정치활동에 참여하였던 체코 정치가들의 기본적 신조가 되기도 하였다.

참 고 문 헌

- Bohm, F. 1992. *Prag*. München-Zürich.
- Bosil, K. 1971. *Bohemia* Bd., II. .München.
- Herder, J. H. 1965. *Ideen zur Philosophie der Geschichte der Menschheit*. Darmstadt.
- Hrejsa, F. 1927. *Mladý Frant. Palacký: Jeho vnitřní život a první dvě řeči*. Praha.
- Hoensch, F. 1993. *Geschichte Böhmens*. München.
- Hromádka, J. L. 1926. *Palackeho osobnost a význam v národním probuzení*. Praha.
- Kalousek, J. 1898. "O vůdčích myšlenkách v historickém díle Palackého." *Památník na oslavu stých narozenin Františka Palackého*. 20-46.
- Kořalka, J. 1982. "Prag - Frankfurt im Frühjahr 1848: Österreich zwischen Großdeutschtum und Austroslawismus." *Wiener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Neuzeit* 9: 117-139.
- _____. 1991. *Tschechen im Habsburgerreich und in Europa 1815-1914*. Wien-München.
- Krejčí, F. V. 1912. *František Palacký, jeho význam v českém probuzení*. Praha.
- Nebesky, W. 1868. *Geschichte des Museums des Königlichen Böhmen*. Praha.
- Nováček, V. J. 1898. *Františka Palackého korespondence a zápisky Bd., I*. Praha.
- Palacký, F. 1843. *die Grafen Kaspar und Franz Sternberg und ihr Wirken für die Wissenschaft und Kunst in Böhmen*. Prag.
- _____. 1848. *Dějiny národu českého v Čechách*. Praha.
- Pfitzner, J. 1930. "Heinrich Luden und František Palacký." *Historische Zeitschrift* 14:53-96.
- Plaschka, P. 1968. *von Palacký bis Pekař. Geschichtswissenschaft und Nationalbewußtsein bei den Tschechen*. Grätz-Köln.
- Prinz, F. 1993. *Geschichte Böhmens 1848-1948*. Frankfurt-Berlin.
- Raupach, H. 1939. *der tschechische Frühnationalismus*. Essen.
- Sundhaußen, H. 1973. *der Einfluß der Herderschen Ideen auf die Nationsbildung bei den Völkern der Habsburger Monarchie*. München.
- Tiefftruk, K. 1881. *Dejiny Matice Česká*. Praha.
- Wegener, W. 1974. *Deutsche und Tschechen. Grundsätzliches zum Verhältnis zweier Völker*. Darmstadt.
- Weishar, R. 1956. *Nationalitätenstaat und Nationalstaat im böhmisch-mährisch-schlesischen Raum. Ein staatsrechtlich-rechthistorischer Überblick über den nationalen Kampf zwischen*

Deutschen und Tschechen. Erlangen.

Wierer, R. 1957. "Palacký's staatspolitisches Programm." *Zeitschrift für Ostforschung* (6): 246-258.

Žaček, Josef F. 1960. *Palacký*. New York.

RESEARCH ACTIVITIES OF F. PALACKÝ: FOCUSED ON THE TIME OF THE PREREVOLUTION OF 1848

Jang-Soo Kim

Kwandong University Dept.

In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research activities of F. Palacký during the time of the Prerevolution of 1848. Influenced by H. Luden and J. G. Herder under the German Romanticism, Palacký was interested in Czech language and history. Step by step, he became convinced that Czech could overcome the given social conditions by reinterpretation of the Czech history. From this point of view, he published many history books, focusing on the strengths of Czech and the weaknesses of Germany. Although German intelligentsia tended to be critical of the Palacký's viewpoints, he managed to prove that his interpretations of their history were useful to Czech.